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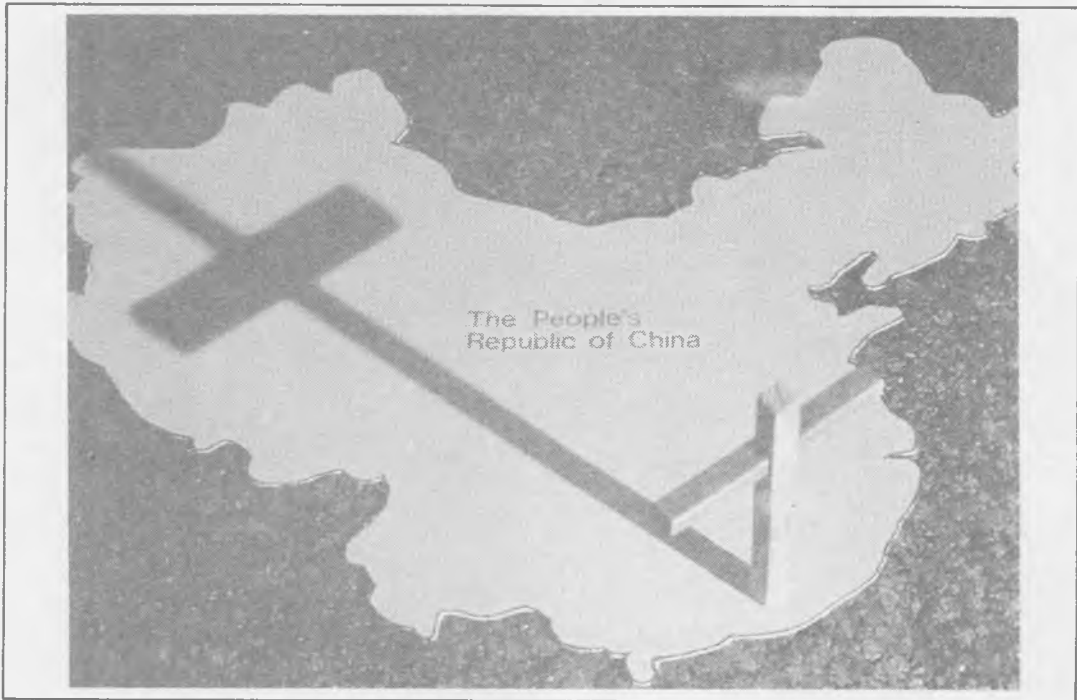
중국을 주께로

제 8 호

1990. 10

你們要去，使萬民作我的門徒，奉父子聖靈的名，給他們施洗。凡我所吩咐你們的，都教訓他們遵守。我就常與你們同在，直到世界的末了（馬太福音 28 章 19~20 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 장 19~20 절)



차례

동참하는 자 (빈미정)/1
사막의 단쟁 (말씀묵상)/2
중국의기독교사 Ⅲ/4
중국의기독교사 Ⅳ/7
중국기독교인물소전(何進善)/11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14
중국어 성경공부(요한복음)/20
대륙 성도의 간증/21
최근 중국 동향/28
대북에서 온 편지/30

中國語文宣教會

동참하는 자



빈 미 정
(본선교회 번역·출판부 간사)

모든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곧 제자도의 길을 실천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소질과 수양은 저마다 다르니, 마치 넓다란 정원에 각양각색의 꽃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되고 어우러진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 중국어문선교회로 피어난 꽃이다. 이 나무가 자리한 곳이 동산의 중앙인가, 한 구석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의할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안배하시는 방법이고, 뜻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신이 그 나무에 어떻게 연합하고 있는가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꽃이 만개의 상태인가, 봉오리의 모습인가 하는 것도 두번째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의 가지에서 움을 틔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움을 틔우기 위해 우리 자신은 그 가지의 한 부분에다 믿음과 기도와 헌신과 열의를 집중해야 한다. 일단 움이 트고 나면 봉오리를 맺고, 꽃을 피우는 일은 순리적으로 이어진다. 봉오리는 그저 희망스러운 모습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것이며 피어난 꽃은 그 활력으로 하

나님 보시기에 좋으실 것이고, 어울어 지는 꽃은 피어날 다음 꽃을 위하여 자신을 썩히는 헌신의 자세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모습일 것이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어문선교사역은 나의 일도 아니며, 너의 일도 아니다. 내가 중요하며, 그는 중요치 않다고 할 것도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는 그의 목적에 따라 순종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가지 안에서 움틔우고, 봉오리 맺고, 꽃피우고, 열매 맺는 생명체가 되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사역에 지금 이 모습으로라도 동참하겠습니다.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다듬으시고, 성장 시키소서"라고 겸손되어 대답하는 자세이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시편 40:1)

(번역부 제공)

당신은 아는가? 기다리는 것이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기다림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데, 인내는 하나의 얻기 어려운 미덕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사방에 울타리를 둘러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 울타리가 높아져서 그 꼭대기조차도 보이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이내 조금해져서 이후에 이런 갇힌 상태에서 이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를 무척이나 알고 싶어한다. 왜 마음대로 드나들수 있는 환경을 가지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일에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하시고 ...」 (시편 37:23)

필리의 성경에는 이 구절 옆에 다음과 같은 주를 달아 놓았다. 「의인의 멈춤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늘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놓으신 울타리 밖으로 뚫고 나오기를 좋아한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큰 실수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의 위치에다 놓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는 결코 가벼이 행동할 수 없을 것이며, 반드시 구름기둥이 이동 할 때에야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함을 배우고 나면 또한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의 영적인 힘이 최고도

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 중에는 이런 류의 고요함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정하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도 주신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준행하는 일 이것이 곧 능력 얻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활동은 무엇이나 낭비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도록 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굉장한 손실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 승리란 바로 움직이지 않는 중에, 조용히 기다리는 중에 얻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움직이는 것에 비해 천 배나 어렵다. 이것은 보다 큰 용기를 가지고 우뚝 서서, 기다리며, 상심치 않고 절망치 않을 것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며 다른 사람에게 일과 명예를 양보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이들은 모두 제각기 바삐 제갈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는 오히려 고요히 믿음을 가지고 즐거이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생활이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13)

<사막의 단상 중에서>





다윗의 시편묵상

피난처되시는 주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시편 35:1-3

다윗이 매우 괴로울 때 쓴 기도가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적에게 둘러싸여 있으나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 “나의 적에 대해 싸워 주십시오. 나와 적 사이에 당신께서 개입하여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다윗은 무기보다 주님을 더 필요로 했고 적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八月十六日

「我曾耐性等候耶和華。」(詩四十篇一節)

你知道等候比前進困難得多。等候需要忍耐，忍耐是一件難得的美德。神在祂子民的四周都在建築籬笆保護他們。當籬笆越築越高，甚至連頂也看不見的時候，我們就要發急，極想知道以後有沒有機會能從這個深幽的範圍裏出去。我們不能明白為甚麼我們不能有一個隨意出入的環境，但是神在祂一切工作上都有目的。『義人的脚步，被耶和華立定。』(詩三十七篇二十三節)

在莫勒的聖經上這一節經文旁邊註著，『義人的止步也被耶和華立定。』但是我們卻常常喜歡穿神為我們所建築的籬笆出去，這實在是一個極大的錯誤。一個基督徒如果已經確實知道是神將他放在他的地位上的，他千萬不可以輕易活動；必須靈柱移動了他纔可以移動。這是極重要的。——主日學報

甚麼時候我們學會了每件事情等待神的引導，甚麼時候我們就會知道，只有在安靜中，我們的靈力纔會達到最高點。我們中間有許多缺乏這種安靜的力量。但是，如果神指定我們去作一件工作，祂必定會給我們毅用的力量。耐性等候遵行神的引導這是得能力的祕訣。在神的旨意之外的活動，都是浪費。讓我們等候神的引導罷。——戈登

在神的引導沒有來到之先，我們不動，坐看良機錯失豈不是一個極大的失敗麼？不，勝利就是在不動中、靜候中得到的。這要比活動艱難千倍。這個需要更大的勇氣去站住，等候，不喪膽，不絕望，絕對服從神的旨意，將工作和榮譽讓給他人。當別人正在各奔前程的時候，自己卻能安靜的、信靠的、喜樂的等候神的引導，這纔是最偉大的生活——『成就了一切還能站立得住。』(弗六章十三節)——密勒

(原文)

◆ 단어, 구문 설명 ◆

1. 困難 kùnnán 곤란, 어려움, 애로
2. 忍耐 rěnnài 인내하다, 참다
3. 籬笆 líba 울타리
4. 脚步 jiǎobù 걸음나비, 보폭, 걸음걸이
5. 缺乏 quēfá 결핍되다, 모자라다.
6. 喪膽 sàngdǎn 간단이 서늘해지다, 혼나다
7. 榮譽 róngyù 영예, 명예



중국기독교사 Ⅲ

(1900~1949)



왕사악(증화한성교회 전도사)

★ 1900년 이후의 개신교전개

1901년 의화단사건으로 맺은辛丑조약이후 기독교에 대한 일반대중, 정부, 사회의 태도가 19세기 때와는 현저하게 변화되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였다.

첫째, 중국인의 구교(仇敎)심리가 저하되었다.

둘째, 기독교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태도가 자제되었다.

셋째, 1911년 이후 종교집회에 정부 고위층 사람들의 참석율이 많아짐으로 정부에서 기독교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넷째, 1912년 기독교는 중국 헌법의 보장을 받는 합법적 종교로 인정되었다.

다섯째, 정부 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이 기독교 사회사업으로 인해 기독교를 좋게 보았다.

1910년대 즉 중화민국 건국이후 전도의 부흥기를 맞이하였다. 1911년이후 정치적으로 혼란시기에, 세계적 설교자인 에디(S. EDDY)와 모트(J. MOTT) 등이 중국의 각지를 돌면서 대규모 근중 전도집회를 통해 많은 인원을 기독교에 귀의시켰다. 또 중국인 부흥사로 丁立美도 중국 각지를 돌면서 순회전도집회를 개최하였다. 이시기 많은 전도단체가 설립되었다. 즉 「中華國內佈道會」, 「中國學生立志傳道團」, 「湖南逐家佈道團」, 「回民(소수민족)佈道會」, 「淸掃夫佈道會」 등이 있었다. 중국인에 의한 자립교회, 자립조직이 또한 20세기에

접어들어 활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06년 상해에서 俞宗周(國禎)가 「中國自立會」를 조직하여 그후 이에 부응하는 교회들이 각지에서 속출하게 되어 자립을 선언하였다. 1920년에는 80개, 1921년에는 150개, 1923년에는 290개로 증가되었고, 또 서양단체와 선교사로 부터의 자립적 교회 모습을 넘어서 중국인 나름대로의 토착성을 띤 중국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를들어 1880년대에 자립적 교회가 나오기도 하였지만 약했으며 1910년 복건성의 「眞耶穌敎會」, 1920년이후 산둥성의 마팡에 「耶穌家庭」과 위지만니의 「聚會所」(小群敎會 또는 地方敎會라고도 함)가 있었다.

1913년에는 과거 선교사일변도의 기독교조직이 아닌 중국인 위주의 전국기독교 조직인 「中華續行委辦會」가 설립되어 전국교회의 연합사업과 협력사업을 시도하였다.

1922년에는 「中華基督教協進會」라는 이름으로 개칭하여 지속적 교회연합사업과 더불어 전도사업을 전개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국적인 근벌들의 파워게임으로 불안이 고조되었으며 더욱 1919년의 5.4운동으로 인한 사상계몽이 '과학', '민주',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등의 구호로 전개되어 기독교가 반제국주의의 표적이 되었다. 1920년에는 기독교가 '반기독교운동'으로 활동위축과 반성 그리고 기독교의 토착화 등의 결과를 낳았다. 반기독교운동이 끝난 후 1930년대에 접어들자 기독교내에서는 여러 운동들이 전개되었다.

첫째, '중국기독교협의회'에서 '5년운동'

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5년동안(1930~1934) 중국의 기독교를 양적으로는 2배의 증가, 질적으로는 종교교육, 식자운동(문명퇴치운동)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둘째, 베델전도단의 순회전도활동이었다. 計志文, 화학박사인 宋尚節은 중국의 바울같은 존재로 주요인물로 한 베델전도단은 4년동안 장장 5만마일을 다녔으며 결신자 5만명의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기독교 농촌운동이 1926년 하북성 정현(定縣)에 晏陽初에 의해 전개되어 중국 농촌의 전통적문제를 '愚,貧,弱,私'를 타파하려 하였고 1934년 강서성의 여천에 연변대학교수인 徐寶謙이 '정현모델'을 근거로 농촌봉사, 건설운동을 전개하였다.

1930년대에는 기독교내에서 당시의 정국의 혼란, 사회의 불안에 대해 여러인사들에 의한 상이한 구국책이 나왔었다. 즉, 이들 인사들은 기독교가 사회와 국가에 대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 견해를 피력하게 된 것이다.

구국의 주장으로는

첫째, 혁명참여 주장이다. 당시 연경대학의 오뢰천(吳雷川)은 기독교가 사회개조에 참여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 혁명에 참여하고 유혈혁명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YMCA의 오요종(吳耀宗)은 1945년 이전에는 비폭력적 방법을 주장하나 그 이후는 폭력에 대한 긍정할 뿐만 아니라 공산혁명에 참여부신하게 되었다. 그 밖에 徐謙과 孫科가 있었다.

둘째, 사회개혁에의 참여 주장이다. 즉 기독교 사회운동, 계몽운동, 농촌운동등을 통한 사회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晏陽初와 徐寶謙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셋째, 혁명, 사회가 개혁된다하더라도 영혼 구원에의 참여주장이다. 王明道와 베델전도단 인사들은 오직 영혼 구원만이 의미있고 참된 기독교적 애국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었다.

비록 이상과 같은 주장과 견해는 있었지만 실제 혁명과 사회개혁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적었다. 기독교인은 당시에 소수였고 또 기독교인들의 능력이라는 것도 상당히 미약하였기 때문에 기독교인에 의한 사회변화, 구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1937~1945년은 중국의 전면적인 항일전쟁 전개도 사회가 전쟁터로 되어 황폐화되었다. 외국인선교사는 대거 철수하거나 기타 후방과 홍콩쪽으로 선교장소를 이전하였고 유럽의 세계대전으로 선교사, 선교후원금도 미약한 실정이었다. 救世軍과 적십자회의 활동은 두드러졌고 그들의 의료활동, 교육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 이전시기인 1934년부터 벌어져 전개된 '靑年歸主運動'은 이시기에 더욱 가속화되어 청년의 기독교 귀의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1945~1949년은 국공내전시기로 중국전역의 전쟁의 불은 종식될 줄 몰랐다. 이 시기 장기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교회는 재건되기가 극히 어려웠고 신도들이 많이 유실되었다. 특히 공사회되기 전후에 해외로 떠난 신도들이 많아졌었다.

중국의 기독교 통계 숫자는 다음과 같다.

년도	선교사	신도
1905	3,445	178,251
1910	5,144	207,747
1915	5,338	268,652
1920	6,204	366,527
1925	8,300	
1928	5,375	446,631
1929	4,744	
1937	5,891	960,000
1949	5,843	834,909

1928~1949년까지는 선교사들이 제국주의의 도구였기 때문에 급속히 줄었으며 1937년도에 비해 1949년도가 신도수가 줄은것은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해외로 이민을 갔기 때문이다.

1949~현재까지는 5천만명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

중국의 기독교사는 당나라 때부터 전해져서 중국사람들에게 참하나님을 나타내 보였다. 唐,元,明,淸을 거치면서 복음이 들어왔다가 또 소멸되었다. 현재 우리가 전해받은 기독교 복음은 1807년 모리슨에 의해 시작되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1807년에 들어온 복음은 중국대륙 뿐 아니라 해외에도 중국인의 이민

으로 지속적으로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의 全民福音化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 질의와 응답 >

문 : 워치만니의 계열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답 : 居靈 - 1949년 공산화가 되었을 때 홍콩에 있었으나 중국에 다시 들어갔다. 복음서원 계열에는 李常受가 있는데 이는 워치만니의 제자이다. 대만에 聚會所와 聚會處(형제교회)가 있는데 이곳은 제도권적이고 비판적이다. 呼喊派는 1983년에 탄압을 받음.

문 : 기독교가 정부와 마찰된 이유는?

답 : 남녀가 같이 있어서 오랫동안 집회를 한 다든지 안수할 때 국민체조와 비슷하게 하기 때문이다

문 : 1919년 5.4운동시 격변과 한국의 3.1운동과 비교하여 역사적, 신앙사적으로 커다란 기독교 민족주의의 운동 여부와 운동이 있었다면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

답 :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명칭의 운동은 없지만 1924년 반기독교 운동에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계기가 중국기독교로 하여금 서양교회의 탈피와 토착화 문제의 논란의 계기가 되었다. 반기독교 운동에 대하여는 중국과 교회(5,6월호, 7,8월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 토착종교와의 연관관계는?

답 : '기독교와 중국 문화가 비록 내용이 다르지만 일치한다', '기독교와 중국문화는 서로 융합 된다', '기독교가 중국의 문화를 개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문화가 여러 이교적인 모습이 많은데 기독교가 보충할 수 있다', '기독교와 중국문화가 서로 대립된다', '기독교가 중국문화를 심판한다', '기독교 문화가 전세계 문화를 걸러낼 수 있다' 등의 주장이 있는데 이상은 사상적인 측면에서만 국한된 것이다. 위의 내용은 중국의 잡지 증 생명잡지, 진리와 생명, 문사월간 등의 잡지에서만 실리는 정도이다.

문 : 기독교는 중국 가정의례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답 : 아주 심각하므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효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고 또한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차례지내는 것을 미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한 데도 많이 있다. 비크리스찬 가정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 때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기독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제사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經文背誦(성구 암송)

구원의 확신 (得救的確信)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11,12)

這見證，就是上帝賜給我們永生，這永生也是在他兒子裏面。人有了上帝的兒子就有生命；沒有上帝的兒子就沒有生命。

(約翰一書 5:11,12)

중국기독교사 IV

(1949~1990)

왕사악(중화한성교회 전도사)

I. 서론

1949. 10. 1 중국공산당의 정권수립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시대의 획을 그은 것 이외에도 기독교의 중국전파에 있어서도 큰 영향과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중국에서의 기독교의 역사 전개는 늘 국가권력과 정치형태와의 관계 속에서 기생하여 발전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49년의 공산정권 수립이후 기독교의 발전은 국가권력과 정치형태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다. 더욱이 사회주의 중국이라는 국가속에서의 기독교는 여러가지 시각의 혼란과 성격 규명의 어려움 등의 불리한 이해체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자료의 미공개, 시기의 근접 등에 있어 역사적 조명은 한층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우선 중공의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한 先 이해들을 살펴본 후 1949년 이후 정치흐름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의 상황을 조명해 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신도가 1949년에는 100만이던 것이 현재 5-8천만에 이르르게 된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중공의 기독교를 이해하고자 한다.

II. 중공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한 先 이해들

1.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종교관

- 1) 마르크스: 종교는 피압박 생명의 탄식이며 無情世界의 감정이다. 마치 정신이 없는 제도의 정신처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헤겔법철학비판)

- 2) 엥겔스: 모든 종교는 인간 생활을 지배하는 외부힘이 인간 머리에 반영된 환상이다. 이 반영 가운데 인간의 힘은 초인간적 힘의 형식을 취했다. (반듀링론)
- 3) 레닌: 일생동안 노동했으나 빈곤한자에 대해 종교는 순종과 인내를 가르치며 그들에게 희망을 천국의 은사 속에 두라고 권한다. . . . 종교는 인민을 위한 아편이며, 종교는 일종의 정신적 저질의 술이다. (사회주의와 종교)
- 4) 모택동: 공산당원도 여러 유심론자 심지어 종교신자들과 정치행동의 반제국주의라는 것 위에서 통일전선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그들의 유심론과 종교교리를 찬동해서는 안된다. (신민주주의론)
- 5) 중국 사회과학자들의 종교관: 중국 사회과학자들이 사회주의시기의 종교문제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귀결을 도출해 냈다.
 - ① 종교는 결국은 소멸되나 오직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장기발전을 겪고 난 후, 모든 객관적 조건이 구비된 후에 자연 소멸될 것이다.
 - ② 사회주의시기의 종교의 장기적 존재성을 인정한다.
 - ③ 사회주의시기의 종교는 일정한 가치가 인정이 되고 일정한 작용을 한다. 즉 군중의 정신적 의지가 되며, 외국신도와의 유대 강화, 종교의 사회공익사업이 유익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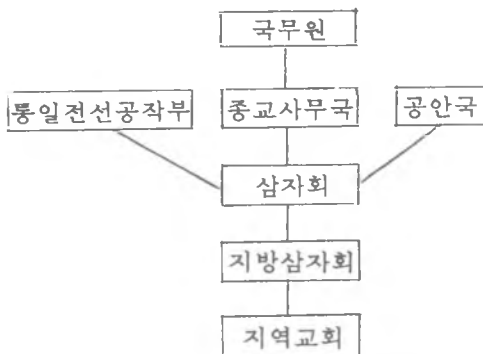
④ 사회주의시기의 종교는 통전적 가치가 인정되며 통전적 대상이 된다.

2. 삼자회의 결성은 중국기독교인의 자발적 결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은래의 지도하에 된 것이었다. 또 “삼자선언”의 주목적은 새로운 공산권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그러므로 삼자회는 그 시작에 있어 중공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3. 중공당국의 기독교 (천주교, 불교, 도교, 회교도 같음)에 대한 기본적 요구, 태도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① 기독교는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사회주의 길을 고수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옹호해야 한다.
- ② 기독교는 4대 근대화에 참여해야 하며 愛國의 모든 측면을 순종해야 한다.
- ③ “종교신앙”의 자유정책을 굳건히 관철, 집행하여야 한다.
- ④ 삼자회, 기협의 활동은 합법적이며 인정한다.
- ⑤ 종교업무는 헌법36조(82년 개정헌법) 및 증양19호 문서(82.3.31)를 기준으로 처리, 집행한다.

중국의 기독교 업무는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삼자회), 중국기독교협회(기협) 두 단체에서 관장한다. 삼자회와 기협은 다음과 같은 업무상의 자문, 협의, 관계기관과 관계한다.



5. 삼자회와 기협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 통전업무를 적극 협조해야 하며 당국과 관계기관과 꼭 협의체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당국과 관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삼자교회 신도의 주요 책임으로 愛國愛黨을 해야 한다.

6. 중국의 기독교 상황을 볼 때 소수의 삼자교회 신도(5백만명)와 다수의 가정교회신도(5 - 8천만명)가 공존하고 있다.

7. 가정교회는 영세적이고, 점조직이며 (점차 크게 확대됨), 평신도에 의해 지도를 받고 있으며, 삼자교회나 정부의 종교정책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이다.

8. 중공당국과 삼자회가 기독교활동을 하는 데 두 장애물이 있다. 하나는 가정교회들이며 또 하나는 해외의 기독교단체 및 교회이다 (중국에 와서 선교하겠다는 단체나 교회들). 그리하여 해외의 세력들은 삼자정책으로 침투를 막고 가정교회 세력들은 삼정정책(定人, 定點, 定片)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

Ⅲ. 정치와의 관계 속에서의 기독교 발전 (1949~1990)

1949 - 1954	1950년초 삼자회성립, 기독교회를 통합 중국교회와 서방교회와의 관계 단절
1954 - 1958	교회를 집중관리, 교회내 우파분자 색출. 성직자에 타격증, 집회 중단시작, 가정교회태동
1958 - 1960	대약진운동으로 전국민이 생산대열 가담. 교회집회 거의 중지, 가정교회 시작.

1960 - 1965

대약진운동 실패 요소
기의 修正主義 노선으
로 행정체제 느슨,
그리하여 종교에 대해
완화된 태도 나타남.
1963년 종교의 “온건-
강경” 노선 논쟁.

1965 - 1976

문화대혁명기간은 전면
적 종교 억제, 탄압정책
강경노선으로 종교 소
멸을 적극적 기도.
가정교회가 극비리에
집회지속, 순회지도자
의 순교정신에 입각한
도 활동 전개.

1976 - 1979

사인방 축출, 후기 문
혁시대. 등소평 점차
세력 구축. 종교신앙여
전히 어려움.

1979 - 1982.3

등소평체제의 건립, 구
축, 4대현대화 시작.
종교정책회복, 삼자회가
재건 되었고 교회 집회
시작.
가정교회 반양성화
(농촌).

1982.3 - 1987

등소평정권 확고히 굳
힘, 경제체제 개혁 단
행.
삼자교회의 조직확대
(縣級조직의 건립),
발전 됨. 가정교회 82.3
이후 핍박 심각

1987 - 1990

등소평의 개혁 좌절 봉
착. 삼자교회는 발전
중 여러 모순 겪음. 鄉
村 조직 수립.
가정교회 핍박속성장.
89년 6.4 이후 도시의
가정교회 위축.

Ⅳ. 중국의 기독교 성장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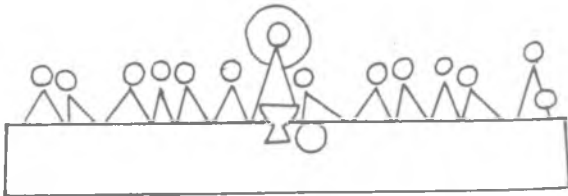
1. 평신도의 교회 ----- 1950, 60년대의 여
러 국가적 운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
성직자 등(목사, 전도사, 주교 등)이 체
포 또는 사망되었다. 결국 중국교회에서
는 평신도만 남아 있게되어 평신도에 의
한 교회 재건이 역사적 사명으로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대로 교회를 이
끌어 나갔고 극렬한 핍박, 고난속에서 집
회가 정지되지 않았다.
2. 핍박과 고난 ----- “복음과 함께 고난
을 받으라”라는 말씀과 같이 중국의 기독
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현실
적 환경을 거부할수가 없었다. 이런 핍박
과 고난 속에서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주
었고 고난을 이기는 기독교 신앙의 특질을
나타냈다.
3. 순회전도자의 활동 ----- 순회전도자는
문혁기간에 많은 평신도 및 농촌에 하방된
교역자에 의해 시작되었다.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고 또 심은 씨앗을 돌보는 일은 생
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위험한 사역이
다.
4. 해외의 지원사역----- 해외의 교회와 기
독교인은 공산화 이후 늘 중국을 기억하고
기도하였다. 심지어 극비리에 문혁기간에
활동을 전개한 사람도 있지만 주로 개방화
이후 여행, 친척방문, 취업 등의 목적으로
들어가 성경, 신앙서적의 제공, 제자양육,
금전지원 등을 하여 가정교회에 도움이 되
었다.
5. 복음방송----- 극동방송(FEBC), 홍콩
TWR 방송 등의 지속적 복음방송으로 신
도가처음 복음을 듣는 신도가 처음복음을
듣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개방화 이전
복음방송의 공헌은 절대적이었으며 개방
화 이후에도 기존신자를 대상으로 신학훈
련, 성경강해등의 다각적 프로그램으로 성

속을 도모하고 있다.

- 6. 당국의 개방정책---- 중공당국의 개방정책은 과거 억누르는 환경보다는 유연하게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는 복음전도 하는 데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개방초기(1979-1982)의 정치형세는 신도가 급증하는 출구를 제공하였다.

IV. 맺음말

이상의 중국기독교 이해를 통해 중국의 정치적 새로운 시기(사회주의 국가성립 1949년 이후)의 기독교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귀결이 도출 되었다. 첫째, 정치와 정권은 기독교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제공한다. 둘째, 기독교 발전은 핍박과 고난과 유관하다. 셋째, 복음의 확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



經文背誦 (성구 암송)

기도 응답의 확신
(禱告得應許的確信)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24)

向來你們沒有奉我的名求甚麼，如今你們求就必得着，叫你們的喜樂可以滿足。
(約翰福音 16:24)

시

주의 깊으신 지혜를

송 명 희

주의 깊으신 지혜를 인하여
나의 마음이 놀라게 되었고
지극히 높으신 주의 지식으로
나의 중심이 우러러보며
주의 선하신 뜻을 통하여
나의 골수가 만족하나이다
주의 베푸신 은혜를 셀 수 없어서
나의 눈에 물줄기가 흐르고
내가 생각치 못한 주의 비밀로
나의 가난함이 채워졌나이다
주께서 한없이 사랑하시니
나의 어깨가 움직이고
주께서 주신 기이한 선물 때문에
나의 심령이 기쁨으로 뛰나이다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나의 영이 크게 동하고
주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면
나의 혼이 즐거움으로 진동하며
주를 전심으로 경외하고 섬길 때
나의 영혼이 안식하나이다
주께서 끼쳐 주신 평안으로
나에게 안정이 넘치며
주의 주신 풍부한 양식으로
내가 굶주리지 아니하고
주의 흘러 주신 보배 피는
나의 목마름을 축축히 적시나이다.



기독교 중국 전래 초기의 이름있는 목사

何進善 (1817~1871)

(廣東省 南海縣)



何進善(1817~1871)목사는 런던선교회가 중국에 와서 선교하기 시작한 초창기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사람으로 梁發을 계승하여 중국에서 두번째로 목사가 된 사람이다. 그가 선교한 발자취는 말레시아, 홍콩과 광둥(廣東)등지에 미쳤는데 돈독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으며, 부지런히 전도하였으며 런던선교회의 중국선교사역의 개척에 공이 있다. 그리고 학문적 수양이 뛰어났으며 중국문학은 물론 서양의 문학에도 통달하여 저서를 통하여 말씀을 널리 알리거나 성경을 주해하는 데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이밖에 초기기독교 교육사업의 확산에도 큰 공헌을 세웠다. 이처럼 그는 진실로 기독교가 중국에 전래될 때 특히 특출하여 다방면에 공헌을 한 초기의 명망있는 목사였다.

何進善은 字가 福堂이고 廣東省 南海縣 西樵山人으로 청나라 嘉慶 22년(1817)에 태어났다. 남해(南海)는 주장 삼각주지역에 위치하였는데 유명한 화교 거주지역의 하나로 縣民은 모두가 남양등지로 가서 발전을 도모하였는데 何進善도 유년시기에 아버지를 따라 남양의 말라카로 가서 거주하였다. 그의 부친은 이 지역에서 생계를 도모하였으며 하진선은 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평범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何進善이 아버지를 따라 말라카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는 런던선교회측에서 중국선교준비에

열을 내던 때였다. 런던선교회의 모리슨목사는 중국에 와서 선교한 최초의 기독교목사로 이 때는 청나라 가경 12년(1807)이었다. 그러나 중국에 온 후 선교사역은 문화차이나 언어상의 어려움이나 선교자료의 부족 등 여러가지 제한을 쉽사리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과가 충분치 못했으며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믿는 중국인이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리슨은 장기계획을 세웠다. 그는 다방면으로 사역을 전개하려고 노력했는데, 중국화교를 선택하여 목사와 선교사의 직을 맡기려 하였다. 완벽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한 무리의 뛰어난 간부를 배양하고 다시 이들을 중국인 가운데로 보내어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모리슨 목사는 영국령 말라카를 선택하여 학교를 세우고 화교 가운데서 학생을 모집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말라카는 학교를 세울만한 가장 이상적인 장소였다. 중국 내륙은 아직 항구가 폐쇄되어 있었고 광주(廣州)만이 외국인과의 교역이 허락되었으며 광주(廣州)성내라도 아직까지 외국인의 거주는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국내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으므로 비교적 화교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말라카를 선택하여 학교를 세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다. 청나라 嘉慶 23년(1818) 9월 10일

모리슨은 말라카에서 英華書院(Anglo-Chinese College)을 설립하기 위해 기공예배를 드렸고 2년 후(1820)에 낙성했다.

영화서원에서 처음으로 교장직을 맡은 사람은 밀네목사(Rev. William Milne)로 역시 런던 선교회가 중국에 파송한 목사 중의 하나였다. 그는 모리슨 목사와 같은 뜻을 가져서 이 학교가 중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능통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해낼 수 있기를 바랐다. 또한 이 언어를 더 잘 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마음에 기독교신앙에 대한 더 많은 깨달음이 있게 되어 선교에 헌신하여 중국민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학생이 나타나기를 바랐다. 하진선목사의 소전(小傳)을 썼던 런던 선교회의 교우(教友) 양주신(梁柱臣)의 '하목사사략(何牧師事略)'이란 글에서는 영화서원의 설립목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서구학자 모리슨목사는 영화서원을 설립했는데 이것은 중국과 서양의 서적을 전함으로써 사람을 훈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여 예수를 믿게 하며, 우리 중국인이 내륙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며 사람들을 죄악에서 해방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영화서원의 설립은 중국 근대교육사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로 중국 최초의 서구식 교육제도를 채택한 학교로 불리워진다. 이 서원의 위치는 비록 중국의 영토 밖에 있었지만 모집학생과 교육대상이 모두 중국인이므로 중국의 근대교육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진선은 말라카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학교에서 공부하던 중에 완벽한 중국어와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커리큘럼에는 지리학, 기하학, 천문학, 윤리학, 영문과 중문 등 과목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기독교신학도 필수과목의 하나였다. 하진선은 일반지식을 학습했을 뿐 아니라 기독교신앙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선교에 뜻을 세웠으며 기꺼이 목사가 되어 동포에게 기독교

를 전파하고자 했다.

아편전쟁이 끝난 후 남경조약이 맺어졌는데 이 조약으로 청나라 조정은 홍콩을 할양(割讓)했으며, 광주(廣州), 상해(上海), 영파(寧波), 아모이(廈門), 복주(福州)등 5개항을 통상항구로 허가하였는데 이것은 역사상 유래가 없던 일이었다. 아편전쟁은 전체 중국의 운명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중국선교 방법과 태도를 변화시켰다. 즉 기독교의 각 교파는 아편전쟁이 끝남과 함께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얻게 되어 보다 유리한 조건하에서 적극적으로 중국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하진선목사가 소속된 런던선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道光 23년(1843), 말라카의 영화서원은 원장 레계목사(Rev. James Legge)가 이 서원을 홍콩으로 옮김에 따라 교명을 영화신학원(英華神學院; Anglo-Chinese theological Seminary)이라고 고쳤고, 런던선교회의 관심도 말라카에서 홍콩으로 옮겨갔으며 메드허스트(Rev. W.H. Medhurst)회장과 영화서원출신 및 영화서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梁發, 굴양(屈昂), 何進善, 하신(何信)등 중국선교사들도 명령에 복종하여 홍콩으로 가서 廣東각지로 선교하러 갈 준비를 했다. 런던선교회의 메드허스트목사는 오래지 않아 상해로 전근가고 레계목사가 런던선교회의 홍콩사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하진선은 레계목사를 도왔으며 런던선교회가 홍콩에서 행한 모든 사업에 사심없이 봉헌하였고, 이 회가 홍콩에서 세운 교회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하진선은 道光 26년(1846)에 홍콩에서 중국인 중에서 두번째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

하진선목사는 목사임직후에 더욱 "성심으로 주를 섬겼으며, 열심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선교의 발자취가 멀리 廣東 동완(東莞), 廣州, 佛山 각지에 미쳤다. 同治 3년(1864) 홍콩에 있는 런던선교회의 교우들은 경비를 부담하여 자전(自傳)의 정신을 드높였으며 하웅사(何雄斯)를 불산(佛山)으로 파견하여 전도하고 예배당을 건립케 하였으며 하진선도 보내어 돕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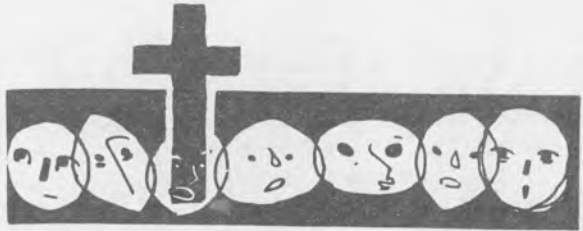
했다. 佛山교회가 나날이 성장해가자, 정식으로 하진선목사를 청빙하여 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임직케 하였다. 불산교회는 동치 9년(1870)에 예배당을 새로 짓고 낙성예배를 드렸으며, 하진선이 불산지구에서 수 년 간 선교한 업적을 치하였다.

불행히도 당시는 민중과 지방유지들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농후하여, 교회를 소란케 하는 사건이 자꾸 발생했고, 목사가 모욕을 당하고 예배당이 파괴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불산예배당이 낙성되기 얼마 전에 동완(東莞)성내에서 예배당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소식이 佛山에 전해지고 그 지역의 민중과 지방유지들도 충동을 받아 런던선교회의 불산 예배당 낙성기념일에 트집을 잡아 말썽을 일으켰다. 이들이 군중을 부추겨서 교회당을 파괴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오자, 교회당에 모여 있던 신도들은 놀라서 사방으로 달아났으며, 엄청난 민중이 하웅사(何雄斯)를 붙들고 몹시 때려, 하웅사는 머리가 상하고 얼굴이 온통 피로 뒤덮여야 되는 증상을 입었다. 그러나 하진선은 뒷 창문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다. 그는 비록 안전하게 홍콩에 돌아 왔으나 너무 놀라서 홍콩에 돌아온 지 얼마 안되어 중풍을 앓다가 이듬해(1871) 2월 15일, 광주에서 소천하였다. 그는 53년 간 세상에서 살았는데 형제들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빨리 죽은 것을 안타까와하여 슬픔을 금할 수가 없었으며 떨치지 못한 그의 재능을 애석해했다.

하진선은 사람됨이 “단정하고 소박 검소했으며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말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재주를 자랑하지 않았다.” 평생의 저술은 매우 많은데 마가복음주석과 십계명주석, 성경석의(聖經析義)등의 저술은 성경의 신비로운 내용을 쉽게 풀이해 놓은 것으로 후학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것들이다. 하목사에게는 이름이 계(啓)라는 아들이 있는데 변호사, 의사, 교육가, 자선사업가, 정치가로서 중국근대화에 큰 공을 세웠다. 이런 성취는 실로 그가 그의

부친 하진선을 잘 따른 데서 얻어진 것이다.

[출전: 中國基督教 人物小傳 上卷]



經文得勝(성구완송)

승리의 확신 (得勝的確信)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13)

你們所遇見的試探，無非是人所能受的；上帝是信實的，必不叫你們受試探過於所能受的；在受試探的時候，總要給你們開一條出路，叫你們能忍受得住。

(哥林多前書 10:13)

☐ 꼭 읽어 보아야 할 책 ☐

- ☞ 중국 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HOPE)
- ☞ 중국선교-중국교회장정록
(D. 에디니, 김묘경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사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1949-1988) (I)

(번역: 방 지 거)

이 글은 홍콩의 중국교회연구센터(CCRC)의 조나단차오 박사가 쓴 글로서 1949년부터 1988년 사이의 중국교회의 실상과 중국의 종교정책에 대한 귀중한 자료이다.

이 글은 영문으로된 "WISE AS SERPENTS HARMLESS AS DOVES;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데 본 선교회는 저자의 허락을 이미 득하였음을 밝힌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번역 게재하려고 한다.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내용과 관련시켜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인 전후관계는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에 관한 것이다. 서구 기독교 국가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어느 정도 해결된 문제다. 그러나 중국 대륙같은 사회주의 국가나, 혁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다른 제3세계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생활과 증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오늘날 홍콩에서도 이는 현존하는 문제인데 특히 1997년 중국으로의 복귀를 논의하는 점이 그러하다. 이 문제는 홍콩의 미래 헌법인 기본법의 구상과 관련지어 현재 논의 중에 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는 중국 대륙에서 시행되어 왔던 종교정책과 유사한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 본토의 교회와 국가 관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중국 공산당의 종교정책에 관해 이해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종교정책의 전개에 기여해 온 주요한

이념적 요소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1949년 이래 교회와 국가 관계의 역사적인 전개과정을 분석해야 한다. 단 여기서는 개신교의 경험으로 국한할 것이다.

1. 중국 공산당 종교정책의 본질

사회주의 중국에서 공산당의 종교정책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설정한 범주 안에서 골격을 형성한다. 그 정책은 1982년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바처럼 '중화인민 공화국의 인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1982년 3월 31일 발행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19호문건에서 더욱 충실하게 보충되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내적인 신앙의 자유라는 말로써 정의된다. 즉 개인의 양심상 믿을 권리 또는 믿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그것은 교회기관의 바램과는 달리 성경에 기술된 교회의 생활에 대한 소개의 자유와 교회 생활로 인도할 자유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종교의 자유는 믿음에 대한 사회적인 표현과 다른 것이다. 즉 종교는 정치와 교육, 결혼과 가족생활 등을 방해할 수는 없다. 종교는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되어야 하며,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호소하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종교활동은 정부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며 애국 종교단체의 감독하에서 수행된다. 이러한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특정한 인사(삼자애국운동과 같은 애국단체에 의해 인정받은 목사)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행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인정받은 목사라 할지라도 지정된 지역에서만 목회활동을 해야한다. 이를 '三定' 정책이라 한다. 정부의 통제와 애국 종교단체의 통제를 벗어난 신자

에 의해 이루어진 어떠한 활동도 '비정상적인 종교 활동'으로 간주되며, 불법적이고 반혁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독자적인 가정집회나 순회전도 등의 활동은 종교활동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정치적인 저항으로 간주되고, 저항자들은 정치범으로 다루어진다.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종교활동에 대한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본토의 중국 신도들과 외국의 신도나 교회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허락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외국의 종교 기구들이 중국 본토 교회와 직접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금물이다. 정부와 애국단체들은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목표였던 삼자(三自: 자립, 자치, 자양)라는 명목하에 중국 본토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통일전선 이론에서는 종교란 중국 본토의 국가적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적인 호응을 얻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삼자애국운동위원회(TSPM)와 중국카톨릭애국협회와 같은 애국단체들은 타국에 대표를 파견하거나 외국의 종교조직등을 받아들이는 것에 고무되어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 통일전선 구상은 국가의 현대화계획을 위해 종교적인 대중들의 지지를 끌어들이도록, 정부관료와 애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지령을 내렸다.

이러한 종교정책은 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국무원 종교사무국 그리고 애국종교단체의 국가지도자들의 협력하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통일전선공작부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종교정책은 성(省)과 도시의 관청에 지시하는 국립사무소가 소재하는 종교사무국에서 집행된다. 아울러 순차적으로 성과 도시관청에서는 현(縣) 단위 관청의 지령을 하달한다. 정책의 집행은 종교사무국의 지침에 따라서 주요 애국 종교단체들이 정책을 집행한다. 단체의 명칭은 (1) 중국불교협회 (2) 중국도교협회 (3) 중국이슬람협회 (4) 중국기독교협회

가 설립했던 삼자애국운동위원회(1954) (5) 카톨릭 교회의 국가 집행위원회를 차례로 설립했던 중국카톨릭애국협회(1957) 등이다.

이러한 애국단체들의 종교사무국에 대한 보고는 당 통제하에서 지방 통일전선사무소에 이어지며, 지방공안국과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다.

종교정책은 공안국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된다. 이같은 강력한 추진 없이는 정책과 애국단체는 무기력하다. 정책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반대자들은 공안국의 관료 등에 의해서 경고나 협박을 받는다. 때때로 이들은 공안당국자에 의해 체포되어 유치소에 감금된다. 그리고 때로 삼자애국교회 관리들은 첩보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체포된 혐의자들은 공안국에 의해 더욱 협박을 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국에서 조사를 받고 법정으로 넘겨진다. 관할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형을 선고하거나 석방시킨다. 이같은 체포에서 선고에 이르는 과정은 어느 곳에서든지 6개월에서부터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렇게 하여 형이 선고된 사람들은 공안국의 유치소에서 감옥으로 이송된다. 통일전선공작부, 종교사무국,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같은 애국 종교단체 그리고 국가, 성, 현 단위의 공안국 간에는 이 과정에서 긴밀한 내용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이같은 종교정책과 그 실천이 전개되었는가?

2. 공산중국의 종교정책과 실천의 역사적요소

공산중국에서 종교정책을 형성하는데는 네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다. 이 요소들은 전통과 근대 중국의 전체적인 국가통제의 혼란물과 그리고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국가관계의 본질적 성격들을 만들면서 상호작용한다.

첫째, 전통중국의 종교에 대한 국가 통제의 역사적 유산이다. 황제 통치의 중국에서는

국가는 모든 국면에서 신민의 생명에 대해 완전한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론상에서나 실제상에 있어서나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지 않는다고 이해되어 왔으나 중국에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지배권을 갖는다는 사실에 대해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후한시대, 정확히는 중당(中唐)이후 부터 유교는 정통적인 교리의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정치 철학체계 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으로서 공식적인 정통교리의 위치를 점유하였다. 이같은 유교적인 정통교리에 친숙하므로서 모든 다른 신념의 체계들은 '이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도적인 종교는 국가의 통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한 관용되어졌다. 법 조항과 정부 통제를 통하여 종교단체의 영향력은 사회정치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감소되었다. 동시에 국가는 통제 체계를 발전시켜 어느 곳에서든지 종교의 확산이 제한되도록 했고 종교단체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였으며 승려단(종교집단)에서 일하는 종교지도자들을 이용하였다. 다른 모든 분파들은 이단으로 간주되었는가 하면 잠재적인 반란단체로 규정되어 불법적으로 여겨져 억압을 받았다.

카톨릭 교회는 거의 150년간 외국에서 온 이단으로 탄압을 받았으며 184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관용되어졌다.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는 기본적으로 1858년 천진조약에 포함된 종교관용의 조항때문에 선교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통제, 공식적인 정통교리, 국가관용의 전통과 이단에 대한 압제의 전통은 다음 도표와 같다.



둘째요소는 1920년에서 1921년 사이의 신문화 운동기에 발생한 반종교적 사상이다. 종교에 대한 토론의 결과로서 5.4운동기의 중국 지식인들은, 모든 실체는 과학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모든 종교를 근대의 중국을 건설하는데 무가치한 것으로 단정하고 거부하였다.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은 젊고 근대적인 중국의 발전의 장애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반종교적인 감성은 많은 지식인과 학생들을 중국공산당으로 합류하도록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 일부의 지식인들은 과학이 객관적인 실체를 위한 모색이라 인정하면서도, 종교를 주관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여 여지를 남겨 두고자 하였다. 더군다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공산중국의 이론가들이 여전히 종교를 개인적인 영역으로 돌려서 어떠한 객관적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19세기 서구에 팽배하였던 종교에 관한 진화론적 관점은 5.4운동기의 중국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종교는 인간사회의 진화에 있어서 역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며 그 자체가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

또한 종교는 원시인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종교는 인간이 계급사회로 들어가면서 그 사회의 분화된 체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됨으로써 발전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종교는 인간이 사회주의 사회로 진입하여 종교가 존재할 만한 사회적인 원인이 제거될 때 사라진다는 것이다.

세째 요소는 종교에 대한 레닌의 반제국주의자로서의 태도이다. 레닌은 종교라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의 저항의지를 둔화시키려고 제공하는 아편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종교에 반대해야 한다. 레닌의 관점은 중국으로 유입되었으며 광범위하게 "사회주의 청년단"에 의해 선전되었다.

1922-23년 사이에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서 1차국공합작시기(1924-1927)동안의 레닌의 반종교적인 관점은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이 후원하는 반기독교운동에 의해서 반제국주의 시위의 일부로서 대중화되었다. 그 이후 기독교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해외제국주의의 전위대로서 간주되었고, 선교사와 중국의 목회자들은 문화적 압제의 매판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관점은 매우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선전되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중국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고 있다.

네번째 요소는 모택동의 모순론과 통일전선 정책이다. 모택동은 정치적, 이념적인 모순과 같은 적대적 모순과 사람들간의 종교적 차이와 같은 비적대적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모택동은 주요모순을 분류하면서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르는 이러한 모순의 운동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체계하에서 종교는 비적대적이며 부차적인 모순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모순체계를 통일전선 정책에 적용시킬때 당의 임무는 주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차적모순과 협력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67년 이후도 중국 본토는 소련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그것이 북경의 주요모순이 되었다. 유사하게 신도들은 현대화의 추구에 있어서 이점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부차적모순과 결합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에 종교인들은 그들의 주관적인 세계관을 점차적으로 포기하고 객관적인 "유물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여 마침내 종교적인 미신을 포기하도록 교육되어야 하며 결국은 당측의 승리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이것이 긍정적인 차원의 통일전선정책이다.

그러나 통일전선정책은 또한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당의 지속적, 교육적인 설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우 공격적인 방법인 비판과 위협으로 처리되어야 하

며, 그리고 필요하다면 무력에 의해 처리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저항자들을 고립시켜 그들의 영향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주요 모순인가 (무엇을 공격해야 하는가)와 무엇이 부차적모순인가 (우호적인 설득정책을 어디에 적용시켜야 하는가)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이것은 당의 권력자들 누구나가 그들이 수행해야 할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계획하여 왔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전후관계는 통일전선정책이 종교와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이행되어지는가를 결정한다.

3. 개신교를 통해 본 교회-국가관계의 발전, 1949-1988

중국 공산당은 줄곧 문화적 제국주의로 간주되어졌던 개신교회를 어떻게 취급하였는가? 1949년 이후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 관계 자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역사적인 방법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1) 집권 초(1949-50)에, 국가는 개신교에 지시하여 애국적인 기구를 구성하고자 했다:

삼자 애국운동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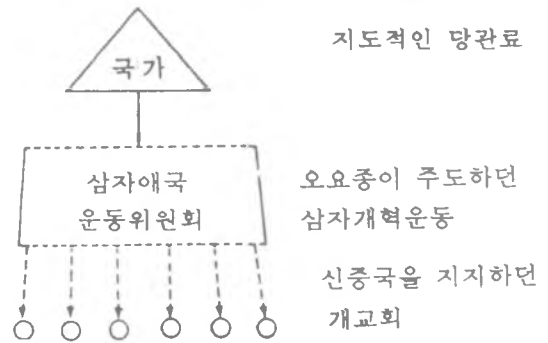
공산당의 집권 초(1949년 10월-1950년 7월), 신정부는 매우 바쁘게 종교사업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경제적, 정치적 질서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교회는 큰 방해없이 "그들 자신의 일"에만 전념하였다. 부흥회와 같은 교회활동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교우들과 더불어 머물렀다. 그러나 핵심적인 몇몇 친정부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교회인사들은 1949년 9월 23일에서 30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토록 초청을 받았다. 그 회의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으며, 10월1일 모택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식 출범을 선포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나서, 오요종(吳耀宗; 전 Y.M.C.A 출판부장)에 의해 주도된 개신교 참석자들은 주요 도시의 개신교 지도자들을 방문하여 새로운 정부의 "일반계획"(common program)과 종교자유 정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기독교 방문단"을 발족시켰다.

1950년 5월2일, 6일, 13일-21일에, 이 지도자 그룹은 북경의 교회를 방문했는데, 주은래 수상은 이들을 소환, 중국본토 기독교의 장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 차례의 야간 방문을 통한 "중국건설기의 개신교회를 위한 노력의 길"이라는 문서가 발간되었다. 이 문서는 서방세계에 "기독교 선언"으로 알려졌다. 1950년 7월 28일 발행된 이 문서는 즉시 전중국 대륙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서명되었다. 문서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제국주의를 거부하고 중국공산당의 지도력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개신교회가 자립, 자치, 자양하도록 요구되었는데, 이것이 "삼자운동"의 기초 문헌이다. 서명운동으로 인하여 서명한 애국적 교회 지도자들과 서명을 거부한 사람들이 구별되게 되었다.

주은래의 소환에 앞서 중국국가기독교협회(NCC, 1922년 창설)는 이미 1950년 1월 26일 새로운 상황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하여 그 해 8월 19일에서 27일 사이에 국가기독교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주은래와 오요종 및 그 외 협력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5월 회의 이후 곧 취소되었다. 새로운 기구가 삼자개혁운동이라는 제명하에 구성되었으며, 다시 곧 국가기독교협회는 본토의 개신교를 대표하는 국가협력기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초기 단계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다음 도표와 같다.

이 단계의 개교회는 여전히 그들의 자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들은 또한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국가는 교회에 직접적으로 통제를 가하지 않았으며 국가기독교협회(NCC)와 같은 존속하는 개신교



기구를 이용하지도 않고 새로운 비공식적 기구를 친정부 목사와 당비서의 지지하에 구성하였다.

이러한 기구를 통하여 국가는 교회에 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교회의 지지를 요구하였다. 삼자개혁운동으로 알려진 이와같은 비공식적인 기구는 종교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한 "기독교 선언"을 발간한 "정치적 운동"으로서 약 40명의 교회의 유명 인사들이 동조하였다.

오요종에 의해 주도된 이 운동은 새로운 정부의 지원하에 중국 개신교회에 정치적인 지시를 하달하기 시작했으며,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대로 처리해야만 하였다.

(2) 1951-54년 사이에 국가는 중국 개신교 반미친조선(反美親朝鮮) 삼자개혁운동을 조성하여 교회를 통제하였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후 압록강을 횡단한 미국은 신중국의 적대적 모순이 되었다. 미국은 1950년 12월 29일 미국내의 중국인 재산권을 동결시켰으며 북경에서는 중국에서의 미국인의 재산권을 동결시켰다. 증미관계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는 개신교와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회에 대한 중국 공산 정부의 태도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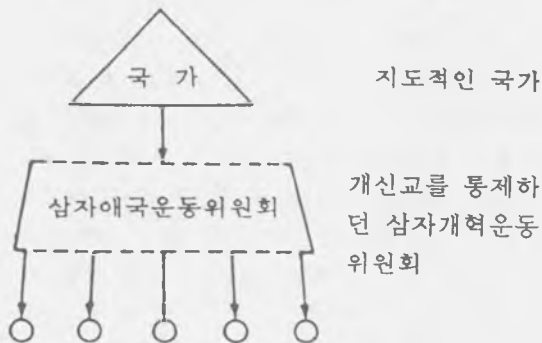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던 모든 교회들은 즉각 미국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적당한 지방 정부에 등록을 요구받았으며 또한 정기적인 재정보고를 실시토록 요구 받았다. 1951년 4월 16

일에서 20일에 교육문화부 종교사무국은 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151명의 개신교지도자를 북경으로 소환하였다. 이 회의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미국제국주의자와 그들의 관계를 단절토록 강요를 받았다. “반동적인” 선교사들과 한번 이상 장개석 정부에 협력한 적이 있는 목회자들, 새로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학습하였다. 게다가 이 회의에서 “중국개신교의 반미친조선 삼자개혁운동 준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었다. 북경회의 이후 151명의 대표들은 그들 자신의 교회에서 반제국주의 집회를 개최토록 요구받았다.

그러한 회의를 성공적으로 실행한 사람들은 삼자개혁운동에 가담토록 독촉을 받았다.

동시에 이러한 운동은 성 및 지방위원회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위원회는 정부에 협력을 선언한 교회의 지도자에 의해 구성되었다. 그 무렵 “기독교 선언” 서명운동이 계속되어 1953년까지 총 84만의 중국 개신교 신자 가운데 근 40만이 이 문서에 서명하였다.

이 단계의 교회, 국가 관계를 설명하자면 다음 도표와 같다.



정부가 개신교를 통제하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교회는 오성기를 게양하고 모택동의 사진을 게시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리고 반동교회를 고발하였다.

② 교회는 “기독교 선언”에 서명하고 반제국주의 집회를 개최토록 요구받았다.

③ 외국 선교에 의해서 설립된 기독교 교육, 의학 기관은 국가에 양도되며, 1952년까지 교회기관단체는 해산하도록 하였다.

④ 북부에 있는 신학교들은 연경신학교로 통합되며 남부에 있는 신학교들은 남경신학 연구원으로 통합하였다.

⑤ 기독교 출판업계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동의하도록 요구 받았으며, 이러한 출판업계 대부분은 1954년까지 폐쇄되었다.

1953년 무렵까지 외국선교회에 의해 설립된 모든 개신교회는 삼자개혁운동 기구를 통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다음호에 계속)

經文背誦 (성구 암송)

인도의 확신
(主帶領的確信)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你要專心仰賴耶和華，不可倚靠自己的聰明；在你一切所行的事上，都要認定他，他必指引你的路。(箴言 3:5,6)



예수님께서 물로 술을 만드심

(요한복음 2장 1절-11절)

第二章 ¹第三日, 在加利利的迦拿有娶亲的筵席, 耶稣的母亲在那里。²耶稣和他的门徒也被请去赴席。³酒用尽了, 耶稣的母亲对他说: “他们没有酒了。”⁴耶稣说: “母亲(原文作“妇人”), 我与你有什么相干? 我的时候还没有到。”⁵他母亲对用人说: “他告诉你们什么, 你们就作什么。”⁶照犹太人洁净的规矩, 有六口石缸摆在那里, 每口可以盛两三桶水。⁷耶稣对用人说: “把缸倒满了水。”他们就倒满了, 直到缸口。⁸耶稣又说: “现在可以舀出来, 送给管筵席的。”他们就送了去。⁹管筵席的尝了那水变的酒, 并不知道是哪里来的, 只有舀水的用人知道。管筵席的便叫新郎来,¹⁰对他说: “人都是先摆上好酒, 等客喝足了, 才摆上次的; 你倒把好酒留到如今!”¹¹这是耶稣所行的头一件神迹, 是在加利利的迦拿行的, 显出他的荣耀来; 他的门徒就信他了。

◆ 단어, 구문 설명 ◆

- 筵席 : 연회, 주연
- 娶亲 : 장가를 들다. 아내를 얻다.
- 洁净 : 깨끗하다. 정갈하다.
- 规矩 : 규제, 규칙
- 盛 : 담다. 넣다. 수용하다.
- 倒 : 따르다. 붓다.
- 舀 : 퍼내다.
- 尝 : 맛보다.



(번역)

제삼일에 갈릴리의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와 그의 제자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도 초청을 받아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술이 다 떨어지자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술이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원문에서는 부인),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모친이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하든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유대인의 정결케 하는 규례에 따라 여섯의 돌항아리가 그곳에 놓여 있었고 매 항아리에는 두 세 통의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 넣어라.” 그들은 곧 항아리 윗부분까지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하기를 “지금 퍼내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보내주면 되겠다.” 그들은 곧 보내주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물이 변하여 된 술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퍼 하인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곧 신랑을 불러 말하기를 “남들은 모두 먼저 좋은 술을 내어놓고 손님들이 충분히 마신 후에야 비로소 조금 못한 것을 내어 놓는데, 당신은 오히려 좋은 술을 지금까지 남겨두고 있었군요.”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첫번째 이적으로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그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옥중에서의 자유로운 영혼

(정기간행부 제공)

편집자의 말:

이 글의 작자는 신앙때문에 “반혁명분자”라는 죄를 뒤집어 쓰고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영하(寧夏: 回族自治区) 노동개조소에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옥중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8여년 전 그는 6년형으로 감형받았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이에 의하여 2년 전에 출옥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반혁명분자”라는 불실죄목에 대해 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판정서를 반려(返戻)했다.

아울러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었던 “에

바브로”를 본받아서 옥중에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로하였다. 그는 아직도 영하감옥에 복역중이며, 감옥학교의 수학교사를 담당하고 있다.

아래 서신은 옥중에 있는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사랑해 주며, 그가 감형을 받아 출옥하기를 권하는 형제자매 및 세째형의 편지에 답한 것으로, 그가 감형받기를 원치 않는 것은 주안에서 참자유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형제에게:

1981년 5월, 영하(寧夏) 고등법원은 나의 형기를 무기형에서 6년으로 감형했다는 판정서를 보내왔습니다. 판정서를 받은 그날 오후 나는 즉시 법원으로 진정을 알리는 글을 보냈고, 판정서를 돌려 보내며, 판정을 취소해 줄 것을 청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내가 감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여러 방향에서 고려해 보길 권했습니다. 나는 형제님들의 뜻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득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솔직하게 나의 뜻을 알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데는 두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을.

한가지는 하나님의 뜻과 현실이 일치하는 것

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길을 열어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려진 길을 가며, 예비된 것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느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지 않고, 물질도 예비해 주시지 않으며, 혹은 손을 펴시어 길을 막으시며 있던 것까지도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고난을 참아 견디라고 하십니다.

다른 한 가지는 마치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그의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 주신 것 같고, 물질도 예비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열려진 길을 가며, 예비된 것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길을 포기하며 그러한 예비된 것을 거절하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 바로 성도가 시험을 받기

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의 그 길은 사단이 열어 놓은 것이며, 예비된 것도 그의 꾀계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 뜻을 세워 주님의 뜻을 행하기로 하였다면, 항상 서로 다른 이 두 종류의 길과 예비하심을 경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절대로 분별해 보지도 않고 길이 있으면 가고, 예비된 것은 받고 하면 안됩니다. 나는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뜻과 기쁨 이외에 또 다른 나의 선택과 나의 생각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감형통지서에는 나에게 감형해 준 이유를 "진정으로 회개합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했는가 안했는가는 나 자신이 정확하게 알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도 그런 척 할 수도 없습니다. 예심을 거쳐서 감옥에 들어간 첫날부터 나는 성명, 연령, 호적 이외는 어떠한 죄도 보고하길 거절했습니다. 예심원이 물을 때 그가 문제를 떠나서 묻기 시작하면 나는 곧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 년이 지난후 법정이 정식재판을 개정했을 때에도 나는 역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는 한마디만 대답했습니다.

판결의 결과는 강제로, 임의로 개조되었습니다. 즉 범죄의 본질을 변조시켰습니다. 내가 복역하는 중에 어떠한 모양의 본질적 개조를 가져오기를 나에게 요구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여년 동안 각종 대소(大小)학습회, 토론회 때 감옥의 윗 사람이 나에게 체험과 깨달은 것을 말하고, 나의 태도를 표현하라고 할 때도 나는 한번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 써야 하는 개조일기에도 한 마디도 죄를 인정하는 글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결의서, 사상보고서, 크고 작은 개조의 총결보고서 등에도 한번도 쓴적이 없습니다. 매년 한 차례 거행되는 정치시사 등 학습고시때 나는 언제나

백지를 내어서 영점을 받았습니다. 만약 간부가 나에게 회개나 죄를 인정하는 면에 대하여 물을 때도 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온 이후 그들이 고발한 나의 죄명에 대하여 조금도 뉘우치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라는 표현에 연결될까봐 매우 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조금도 후회하지 않은 내가 왜 오늘날 그 판결을 받아 들여서 만기석방으로 풀려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로 이미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지금 만기되어 석방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만약 거짓을 말하거나 아무 소리없이 사실을 감춘다면 잠시동안은 숨길수 있지만 이후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떻게 결산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법률적으로도 또한 이것은 틀린 것이며, 불합리한 것이며, 법률의 존엄성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가 형법상 확실히 회개하거나, 회개하는 표현을 했을 때 비로서 감형이나 가석방이 요구되며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실행 할 때 비로서 "감형"과 "가석방"이 국가 판결의 온정성과 엄숙성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독재를 당하고도 조금도 회개하지 않은 죄인으로서 당연히 감형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온 그날부터 주님은 나의 한걸음 한걸음을 인도하셨기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긴 임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다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두가지를 서로 비교할 때 나는 나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뜻은 언제나 제일 처음에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상심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인하여 상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모든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의 감형된 형기가 만료 되는 그날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를 만나러 영하(寧夏)에 오시지 말길 (법정이 부르거나 청하더라도). 둘째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도 도모하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나를 위하여 기도와 감사로 나를 주님께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아 멘! -

에바브로

1986. 1. 26

세째 형에게:

.....왜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라는 이 말을 단지 형식과 문귀의 문제로만 여겨서 무시하십니까? 이것은 문귀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실질과 관련된 것으로서 범인에게 감형과 가석방을 주는 유일한 법적 근거입니다. 감옥에 온 이후 정부가 나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회개" 라는 두 자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이차적인 것입니다.

대략 기억하기로 1973년 노동개조대(勞改隊)의 모든 범인들은 <개조일기>를 써야만 했습니다. 매 사람마다의 그 작은 용돈에서 또 얼마씩 떼어서 백지를 사고 일률적으로 맨 끝의 결표지까지 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죄수의 방마다 두 개의 철 선반을 타원형으로 만들어 양쪽의 창틀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매우

아름답게 정돈되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했습니다. 주님의 인도로 나도 자원하여 돈을 내어서 그 공책을 만들었습니다. 학식있는 죄수는 자신이 직접 쓰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죄수에게 청해서 대신 썼습니다. 유독 나의 <개조일기>만이 언제나 내용이 없었기에 그 안에서 "라오따난"(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집쟁이:역자주)이라고 불리워 졌습니다.

새로운 방법은 소조장(小組長)으로 하여금 매일 나의 입장에서 나를 대신하여 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他人에 의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 다녀 곧 더러워 질 것 같아서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곧 주님께 물어서 주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 종이는 내가 자원해서 돈을 내어 산 것인데 나로 하여금 더러운 일에 가담하게 했습니다. 이튿날 조장이 내 대신 적고는 공책을 제자리에 올려 놓았을때 나는 곧 그 공책을 찢어서 변소의 쓰레기통에 내버렸습니다. 이것은 "반개조(反改造)"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간부는 모임을 확대시켜서 비판하기로 결정하고는 마지막으로 대조장이 협박하면서 말하였습니다. "너에게 다시 공책을 매어 주어 내가 감히 다시 찢나 안 찢나 보겠다." 사실 그때 나는 이미 돌덩어리를 땅에 내려놓은 것과 같이 평안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때 나의 마음은 더욱 감사하며 찬미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산것이 아닌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너희의 물건을 찢어서 무엇하겠는가? 너희 쓰고 싶은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그 몇장의 종이가 뭐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족히 나의 하얀 세마포 옷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냥 보아 넘길 수 있겠습니까?

에바브로

1986. 3. 16

<中國과 敎會 3,4月份 76期 중에서>

회지를 위한 설문 조사

※ 이 자료는 7월 17일 마석 새터교회에서 가진 중국어문선교회 하기수련회시 조사한 “회지에 대한 설문서”조사 결과로 참석자 30명 중 20명이 설문에 응해 주신 것입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정기간행부에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재 발행되고 있는 회지의 개선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1) 회지 표지면에 중국어문선교회를 나타낼 수 있는 마크와 좀더 선명한 표지 사용
 - 2) 많은 부수를 제작하여 각 학교의 기독교 단체나 각 기관에도 보내어 널리 알려 지도록 요망
 - 3) 월간지로 발행 요망(현재는 격월간지)
 - 4) 원고 분량이 너무 길어서 지루하고 어두운 느낌이 많으므로 밝고 웃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5) 회지 원고모집 홍보를 강화
 - 6) 기도제목으로 나눌 것을 따로 가려 계속적으로 볼 수 있게 요망
 - 7) 기사의 내용이 단순하다
 - 8) 페이지 수를 증가
 - 9) 일반 정기간행물로 발전 요망 : 각부 활동보고, 재정보고, 선교회의 광고를 간단히 기록
2. 회지안에 실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1) 세미나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국 서적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선교의 흐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구성
 - 2) 종교적인 인물사, 선교사 기록
 - 3) 중국대륙의 종교정책, 교회 선교현황과 복음의 깊이, 신학 정도를 수록
 - 4) 많은 구독자가 투고할수 있는 창구 마련
 - 5) 해외에서 중국에 대한 선교 방향을 알려 주는 것을 국내에 보고형식으로 수록
 - 6) 수필 수록
 - 7) 회원들의 소식과 독자란을 신설
 - 8) 대륙을 방문한 교회관계 인사의 방문기와 중국교포의 한국교회 방문기 등 수록
 - 9) 기존 다른 선교회 모임의 활동상황을 소개하여 좋은 방법을 모색
 - 10) “선교회 수련회를 다녀와서”의 참가기 수록
 - 11) 중국 비전의 의견, 현지 신앙인의 감동 및 현장 기사 수록
 - 12) 중국 찬송가 매월 1회, 성경요절, 묵상 말씀 해설, 중국어 회화내용
 - 13) 기도편지를 부록으로 제작
 - 14) 간단한 그림(삽화) 삽입
3. 회지의 발행시기와 지면은 적당합니까?
 - 1) 시기 : 월간지(많음) 또는 격월간지
 - 2) 지면 : 현재보다 2~4 페이지 증가
4. 현재의 회지가 귀하의 신안생활과 선교에 대한 관심에 도움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 1) 유익하다.
 - 2) 내용이 너무 어렵다 : 기본적인 신앙논함
 - 3) 현실감이 없으므로 현실감이 있는 내용 수록
5. 앞으로 회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1) 최근의 중국 동향 및 중국교회 상황과 국내 선교기관, 그들이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
 - 2)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내용 수록

회지를 위한 설문 조사

- 3)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선교지 양상
 - 4) 신문지 형식화
 - 5) 회원에게 선교교육을 실시
 - 6) 일반회원들이 이해가 가능하도록
 - 7) 학문적인 깊이를 가진 선교사들의 깊이 있는 내용
 - 8) 다양다채하며 확고한 목표 의식을 가진 내용
 - 9) 독자 앙케이트 실시하여 회지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 10) 회지의 범주를 떠나 일반성 부여
- 4) 어문보다 복음선교쪽으로 전향
 - 5) 일반회원들의 보다 높은 참여를 견인할 방법 강구
 - 6) 각 교회와의 협력관계를 모색하여 활동의 역량을 넓혔으면 함(성장).
 - 7) 좀더 많은 활동범위를 구성
 - 8) 타 대학에 성경반과 선교회와 연계를 가졌으면 함.
 - 9) 상임 편집간사를 채택하였으면 함.
 - 10) 적극적 교육과 제자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
6. 본 선교회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느끼신 점을 적어 주십시오(앞으로 선교회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 1) 확실한 작품을 이룩하였으면 함.
 - 2) 선교 사역을 잘 모르겠다. 실제적인 각 부서의 활동상황을 자세히 보고하여 줄 것.
 - 3) 기존의 성경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적인 범위를 다루었으면 함.
 7. 본 선교회의 부서별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참석하지 않으셨으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점, 참여하시고 싶은 부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1) 부서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
 - 2) 연구부 회원 확장을 위한 참신한 제안
 - 3) 모든 회원이 두루 각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4) 전문적인 번역훈련 요망
 - 5) 연락망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연락

▣ 창립 1주년 감사예배 및 총회 안내 ▣

본 선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전임간사가 4명으로 늘어나면서 부족하나마 이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음은 하나님은 물론, 불충한 저희들이나, 애정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감사와 나눔의 자리를 마련하여 여러분을 초청하오니 부디 오셔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제 목 : 중국어문선교회 창립1주년 감사예배 및 정기총회

일 시 : 1990년 10월 29일 (월요일) 오후7시

장 소 : 교당 기념관 강당 (TEL : 265 - 0220 - 7280)

(승용차는 쌍용빌딩 주차장 이용바람)

生活在基督徒朋友中間

焦山

我從中國來，從北京來，從一個無神論的國家來。我來韓國半年有餘了，結識了不少韓國朋友，其中多半是基督教徒。我在韓國的時間也多半是在中國語文宣教會渡過的。

我走進宣教會，實在是一次偶然的巧遇。我因為要學韓文（我雖然是韓民族，但由於生活在漢族人居住區，沒能學會韓國語）四處求師。學韓文本來應該去韓文係，可是我却糊里糊塗地一頭進了中文系朴星柱教授的辦公室，於是認識了熱心腸的朴教授。於是被介紹到宣教會學習韓文，於是認識了宣教會的朋友們。我說這是“命運的安排”，朴教授說這是“上帝的安排”。

宣教會的人——信基督教的人都很善良，這是我最初的感受。宣教會的朋友免費教我韓文，在生活上熱心幫助我解決困難，令我感動。中國有句俗話：在家靠父母，出外靠朋友。我在韓國因為語言障礙，很難跟親戚們溝通感情。人需要交流感情。宣教會的朋友可以用中文跟我交談，交流感情。於是我便把宣教會當作我在韓國的“家”。

來韓國前，我對基督教的了解只限於讀過一遍聖經，那是因為要看懂聖經畫的內容而讀的。除此，我對基督教一無所知。來韓國後看到四處林立的十字架，看到如此眾多的教徒，實在感到震驚和不理解。

起初我對宣教會的工作也感到奇怪。後來明白了，但又對為宣教會工作的人不計報酬的奉獻精神大惑不解。看到朴星柱教授、李東和

先生、金漢成先生、崔昌勳先生、金聖順小姐及其他人全心全意，盡心竭力地為宣教事業而拼命工作。我才知道在資本主義國家裏也有不為金錢而工作的人。

由於生活在不同的國家、不同的社會裏，所受的教育不同，我的思想與基督教還有距離。但我十分尊重我的朋友們的信仰，我敬重我的朋友們的情操、品德，我喜歡我的信基督教的友人們。

1990年 9月 20日

於漢城



(焦山(가명)씨는 4월부터 본 선교회와 교제를 맺고, 교재연구에 동참하여 선교 사역을 도와주고 있으며, 현재 “이화여대어학연수과정”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본 선교회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고 9월 21일(금) 본 선교회의 철야기도회에 동참하여 삼각산 기도원에도 동행했다. 이 글은 焦山씨가 자신의 한국 체류기간중에 느낀 감흥을 증문으로 작성하여 본지에 기고해 준 것이다. 이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크리스찬 친구들 가운데서

焦山

(번역: 김 한 성)

나는 무신론국가인 중국의 수도, 북경에서 왔다. 내가 한국에 온지는 반년 남짓 되었는데 적지않은 한국친구들을 사귀었으며 그 중의 대부분은 크리스찬이다. 내가 한국에서 지낸 대부분의 시간은 중국어문선교회에서 보냈다.

내가 선교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실로 우연한 계기였다. 나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었기 때문에——나는 비록 한민족이나 한민족거주지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할 수가 없었다.——중국어를 할 수 있는 한국어 교사를 찾고 있었다. 그래서 담대하게 박성주교수의 연구실에 뛰어들었고, 선교회에 소개되어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으며 선교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내가 이것을 운명의 안배라고 말하면 박교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정정해 주곤 하였다.

선교회의 사람들——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매우 선량하다. 이것은 기독교인에 대한 최초의 느낌이었다. 선교회의 친구들은 나에게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한국에서 생활의 여러가지 곤란을 해결하는데 도왔으며 나로 하여금 감동하게 했다. 중국에는 “집에서는 부모를 의지하고, 나가서는 친구를 의지한다.”는 속담이 있다. 나는 한국에서 언어의 장애로 인하여 친척들과의 의사소통에 큰 불편을 겪었다. 사람은 감정의 교환이 필요한 존재이다. 선교회의 친구들과는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감정을 나눌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선교회를 한국에서의 “가정”으로 삼게 되었다.

내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기독교에 대한

나의 이해란 단지 성경을 일독해 본 것에 불과하였다. 그것은 성화(聖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은 것일 뿐이다. 이 밖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나는 한국에 와서 도처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와 수많은 기독교인을 보고 실로 놀랐으며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처음에는 선교회에서 하는 일도 이상하다고 느꼈으나 나중어야 알게 되었다. 그러나 선교회사람들이 보수를 따지지 않고 헌신하는 데 대해서는 그래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박성주교수나 이동화선생, 김한성선생, 최창훈선생, 김성순양 및 다른 사람들이 선교사역에 전심을 다하며 모든 것을 희생해 일하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자본주의국가에서도 돈을 따지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국가에서 살아왔고, 다른 사회에서 자라왔으며, 받아온 교육마저도 달랐기 때문에 나의 사상과 기독교간에는 아직도 차이가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친구들의 신앙을 매우 존중한다. 또한 그들의 지조나 품성도 존중한다. 나는 예수 믿는 나의 친구들이 참으로 좋다.

1990년 9월 20일

서울에서



최근 중국 동향

(경제)

한국의 중소기업체들이 中國에 대규모 공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기계조합연합회는 중국 廣州市와 廣州 경제기술개발구내에 20만명 규모의 공단을 조성키로 합의하고 입주희망업체 모집에 나섰다.

공단입주대상업종은 공작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환경오염관련기계, 주물, 통신기계, 정밀계측기기, 각종 공구등의 제조 분야로 업체당 신청규모는 1천명이다.

현지인력 가운데 필요한 기술인력은 국내에서 파견하고 조선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한 생산제품은 20~30%를 中國 내수용으로 공급하고 중국이 수입에 의존하거나 물량이 부족한 품목은 전량 내수판매가 가능하다. (매일경제신문 1990. 9. 14)

한국과 중국간에 영사기능을 갖는 무역사무소가 북경아시안게임 직후 개설될 예정이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韓中경제관계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1990. 9. 24)

(종교)

최근의 천안문사건을 계기로 홍콩기독교 내부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생성되고 있다고 한다. 보수나 진보로 뚜렷이 대립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홍콩 민주화운동에 보수진영의 교회가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에 나온 홍콩교회협주관의 선교 90선언에서도 밝혀졌듯이 홍콩의 정치 사회적 전환기에 이 혹독한 겨울을 함께 나고자 하는 의지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무너뜨렸고 민주화 운동으로 합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콩의 주민으로서 홍콩의 위기에 대처해야 되는 마지막 공감대가 여기에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어쨌든 홍콩의 중국반환의 그날 역사적인 대전환은 무엇을 말하는가? 구시대 식민지 제국주의의 붕괴가 신아시아 질서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주민과 홍콩의 기독교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대한 사회주의 사회실현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이다. 중국본유의 문화, 유산과 인종, 언어, 정치적, 경제적 현안들을 놓고 기독교의 적응과 관련한 커다란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새누리신문 1990. 9. 15)

문화대혁명 당시 탄압의 주된 대상이 되어 억눌려왔던 중국기독교가 서서히 부흥되고 있다.

과거 서구열강의 중국 대륙침략을 위한 수단이자 문화아편이란 비난을 받았던 중국기독교는 개방정책후 10여년 지난 현재 북경 시내 교회주변에서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을 찾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물결이 중국사회 곳곳에 밀려들고 있다.

현재 북경 시내에는 재적신도 1천5백여명으로 가장 많은 승문문교회를 비롯 성도 6백여명의 향와시교회등 5개의 교회가 있다.

또한 중국기독교협회(CCC)가 197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방정책이 채택된 이듬해 백년당교회가 다시 문을 연후 중국전역의 교회수는 4천44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현재 6천여개 교회에 성도수가 3백50만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10년째 교회일을 보고 있다는 한 신도는 「중국의 교회정책은 종교사무위원회와 중국기독교협회의 3자 애국운동위원회등 3개 기관이 自治, 自傳, 自養의 3자 정책에 입각해 통제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는 외국인을 접촉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1990. 10. 6)

지난 8월12일 중국교포로서는 세번째 목사가 탄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에서 출생으로 하얼빈에 거주하는 고통옥 목사(30)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고통옥사는 문화혁명 이후 목사안수를 받은 최초의 한인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으며 동북신학원 남경신학원을 졸업, 현재 목단강시 교회를 맡고 있다. (국민일보 1990. 10. 8)

(사회)

금년 7월 실시돼 지난 14일 중국국무원(행정부)에 중국인구센서스의 중간집계에 따르면 중국인구가 이미 14억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49년 건국 이래 네번째로 실시된 이번 인구센서스 결과는 지난해 인구추계 11억1천1백91만명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중국정부의 「한자녀 정책」에 위반한 헤이하이즈(黑孩子:無호적아)가 엄청난 수에 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인구정책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헤이하이즈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이번조사的重要한 목적의 하나인데, 관계자들은 이들 숫자가 약 2억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일보 1990. 9. 19)

(정치)

崔浩中의무부장은 「내년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모든 미수교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늦어도 내년중으로 중국과의 수교도 마무리지를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중앙일보 1990. 10. 4)

우리나라와 중국의 조기 修交를 위한 양국정부간 교섭이 북경아시안게임 폐막과 함께 급진전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중국의 錢其琛외교부장이 지난 3일 유엔총회 참석중 한 학술대회연설을 통해 소련, 몽골과 관계를 개선한

中國은 다른 주변국가와도 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한 것은 韓國과의 수교협상이 가까워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한국도 崔浩中 외무장관의 유엔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모든 미수교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음을 지적했다.

中國측은 북경에 설치될 韓國무역사무소의 성격에 대해 형식은 민간사무소이지만 직원은 외무부, 안기부등 어떤부서의 직원을 파견하든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따라서 北京무역사무소는 현재 영사업무와 외교활동을 하는 모스크바주재 韓國영사처와 사실상 동격의 준외교공관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 확실시되며 양국은 가급적 빨리 수교를 이룩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중앙일보 1990. 10. 9)

긴급 기도 요청

중국 흑룡강성 쌍 앞산시 순복음교회에 김효경(70세 가람) 전도사는 공산치하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면서 교회를 지키신 분입니다. 이 교회는 부산 영도교회와 일본 교회의 도움으로 크게 신축하면서 일본 교회 목사님의 이름으로 건축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이 교회를 나라에서 압수했다가 다시 이 교회에 팔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사기위해 물질이 필요한데 약간의 지원금을 가지고 본 선교회 회원인 이철 선생이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1. 흩어진 교인들이 다시 모일수 있도록
2. 이 교회에서 많은 주님의 종이 나오도록
3. 이 교회를 지원하는 평산교회가 후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4. 김효경 전도사의 아들 유원봉(50세)씨가 한국에 와서 신학공부를 할수 있도록
5. 10월 16일(화) 출국하여 15일간 무사히 사역을 감당하고 건강히 돌아올수 있도록

台北에서 온 편지

박성주 선생님 보십시오

할렘루야! 어리석고 부족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모든것을 예비하신대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떠나올 때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선생님과 여러 학우,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항상 평안하시리라 믿고 문안드립니다.

저는 대북에 먼저 오셔서 공부하신 선생님들께 누를 끼칠까 두려워 성실하고 겸손하게 생활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선생님께서 힘쓰시는 중국어성경반과 중국어문선교회의 소식 또한 궁금하기만 합니다.

대북순복음교회 여전도사님을 통해 보내드린 서신은 받아 보셨을 줄 압니다. 토요일과 주일의 예배와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해 여기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께서 마땅히 쓰실 좋은 일꾼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중국어문선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으며 돌아가면 그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온 목표가 중국어를 능히 배워 주님 일에 쓰임을 받고자 함이어서 대만인들의 동족인 대륙에 대한 선교활동 방법이나 여러가지 대륙선교에 대한 일들을 피부로 느끼고 정리해 보며 또한 중국에 대한 우리의 선교시각을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보다 넓혀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언어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 되고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면 주님 일에 힘쓰는 중국어문선교회의 일원으로서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간절히 가져봅니다.

단순한 목적으로 중국에 왔다면 모든 생활이 무척 힘들었을 것이지만 저는 부족하여도 중국어문선교회의 일원으로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

중국어문선교회에서 계획, 출판될 책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아주 조금이나마 핸드북에 기여할 수 있었던 저로서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책이 출판되는 모든 과정 하나 하나와, 이 책들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선교에 대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의 평강과 선생님의 강건하심과 계획하신 일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990. 8. 13.

台北에서 金永錫 드림

※ 타국에서 공부하느라 힘들고 외로울 형제에게 아래 주소로 많은 격려의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住所:

中華民國台北市泰安區泰順街二巷十二號一樓

金永錫



다음 글은
중국어문선교회가
방한 중국교포 선교사역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교회에 지원을 요청한 공문임.
독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방한 중국교포 전도를 위한 기도 및 설교테이프·신앙서적 등 지원요청

수신: 한국의 교회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저희 중국어문선교회는 한국교회가 마땅히 담당해야 할 중국선교사역에 있어 한 지체로 참여하여 특히 중국어문을 통한 문서사역과 언어연수사역 등을 수행하고자 지난 해 10월에 창립되었습니다.

현재 회원은 약 120명 가량 되며 주로 중국어와 중국학을 전공한 이들과 후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몇 가지 사역 가운데는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교포들에 대한 전도 및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사실은 한국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수행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중국교포들은 해마다 수 만 명씩 친척방문차 고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들은 우리말과 중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을 전도하여 주님의 제자로 잘 양육하면 중국으로 돌아간 뒤에 그곳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사의 역할까지도 수행해 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도하는 우리들은 중국어를 몰라도 되므로 전도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한국교회가 중국에 나가지 않고도 가만히 앉아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권 선교는 특히나 지혜와 인내를 필요로 하므로 매사에 신중하여야 됩니다. 더구나 현지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본격적으로 선교하기에는 아직 이른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다가올 주님의 때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현 시점에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국교회를 돕는 데 있어 물질과 교회건축 등으로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의 지원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주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즉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방문한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전도, 단체전도, 1대1 제자훈련, 신학교육 등은 바로 이러한 사역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저희 선교회에서는 이 사역을 크게 넓혀 나가기에 앞서, 우선 나름대로 전도대를 조직하여 작게나마 중국교포들을 대상으로 전도사업을 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조그만 경험들을 토대로 앞으로 교회와 협조하여 보다 본격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바랍니다.

1. 귀 교회가 그동안 비축하신 목사님의 설교테이프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고국을 방문하고 귀국하는 중국교포들, 또는 단기여행자들을 통하여 중국의 형제들에게 전달되며, 그들의 신앙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2. 주석성경과 신학도서 및 신앙도서들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 중국 내의 성경보급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지도급 평신도들이 주석성경과 기본 신학도서를 갈급하게 찾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울러 각종 신앙도서들은 신도들의 신앙에 균형을 잡아줄 것입니다.

귀 교회가 마지막 때에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1990년 10월 1일

중국어문선교회
대표간사 박성주

중국어로 찬양을!

耶穌我愛祢

Jesus I Love You (Alleluia)

JUDE DEL HIERRO

C 5 . 3 3 . 1 | F 6 . 4 4 . i | Dm7 i - 7 . 6 | F/C 6 5 5 - 0 | C

耶 穌， 我 愛 祢， 俯 伏 在 祢 面 前，

C 5 . 3 3 . 1 | F 6 . 4 4 0 | Dm7 i - 7 . i | C i - - G/B

讚 美 敬 拜 祢， 主， 我 王。

Am i . 3 3 - | Dm7 2 3 4 0 | F i - 7 - | C 6 5 5 - 0 |

哈 利 路 亞， 哈 利 路 亞，

Am i . 3 3 - | Dm7 2 3 4 0 | F i - 7 . i | C i - - - ||

哈 利 路 亞， 哈 利 路。

이 복음성가는 우리나라의 “예수 사랑해요”와 같은 성가이다. 우리말 가사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이다.

□신간예고□

“중국선교핸드북”

본선교회가 그동안 번역해온 “중국선교핸드북”이 두란노서원에 의해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 책은 중국선교의 선봉에서 오랜동안 일해오신 조나단 차오(趙天恩) 목사와 그가 책임자로 있는 중국교회연구센터(C.C.R.C.)의 스태프들에 의해 영문으로 저술된 것으로 중국선교를 준비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여러가지 지식들을 담고 있습니다.

조나단 차오 목사는 지난 9월 중국복음선교회가 주관한 중국선교세미나의 주장사로 내한, 이를 계기로 본선교회와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중국선교핸드북”의 한국어판 출판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는데, 그는 이 책의 한국어판 출판을 기꺼이 허락함은 물론 귀국 후에는 서문까지 보내 주었습니다.

한편, 이 책의 출판에 즈음하여 한국교계의 지도자 여러분께서 친히 추천사와 서명을 써 주셨습니다. (충현교회 이종운 목사, 합동신학교 교장 김명혁 목사, 고신대 학장 전호진 목사, 서울대학교 손봉호 교수 등)

이와 같이 본 선교회의 번역·출판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평소 여러분께서 깊은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앞으로도 출간되기까지의 마무리 작업과, 이 책이 출판 후 많은 이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어 중국선교사역의 튼튼한 밑거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책이 출판되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선 추천하신 네 분 중 한 분의 추천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의 말씀

중국선교를 논하면서 조나단 차오 박사를 모른다면 이상할 만큼 그의 명성은 이미 중국인들 중에서만 아니고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국대륙 복음화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전도전략을 개발해 내었으며, 높은 수준의 학자로서 중국교회 근대사는 물론 오늘의 중국교회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명철한 예지와 풍부한 학문적 식견을 동원하여 분석하고 비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중국선교핸드북”은 그의 지금까지 연구된 많은 중국관계자료뿐 아니라 중국대륙선교를 위한 기초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분야를 개척자의 심정으로 파헤친 것들로 이 책을 바로 읽을 수만 있다면 중국선교에 큰 보탬이 될 줄로 믿는다. 중국대륙선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독을 권하고 싶다.

1990년 9월 30일

충현교회위임목사 이종운

재 정 보 고 (8 월)

수 입		지 출	
전월이월	152,200	임 대 료	300,000
후원금(8월)	921,000	사례비(2명)	300,000
테이프판매	100,000	교재개발비	100,000
특별헌금	1,000,000	강사선물(세미나)	50,000
(사무실마련)		노인회지원금	10,000
		도서구입	80,500
		회지제작(7호)	83,000
		복 사 비	36,300
		우 송 료	61,520
		통신비(전화, FAX)	30,480
		테이프복사	41,000
		컴퓨터용지구입	60,000
		테이프구입(세미나등)	18,000
		접대비(봉사자외)	11,600
		신문대금	4,000
		사 무 비	2,500
		선교여행예치금	150,000
		사무실마련비	1,000,000
		출판기금(7월)	100,000
합 계	2,173,200	합 계	2,438,900
		잔 액	-265,700

특별기금적립현황

(8, 9 月)

명 목	금 액
선교여행예치금	이 월 금 790,000
	수 입 300,000
	지 출 500,000
	잔 액 590,000
수 재 헌 금	수 입 125,000
수 재 헌 물	옷가지 약간
사무실마련비	수 입 1,000,000
출판기금	수 입 1,201,000

♡ 후원자상황 (8월) ♡

구규식, 김구성, 김근수, 김성순, 김순규, 김순임, 김승원, 김신봉, 김영숙, 김은숙, 김의득, 김한성, 노숙자, 노재은, 문정희, 민 진, 박동화, 박선남, 박성주, 박정숙, 박종표, 박주서, 박지석, 박지화, 박혜영, 빈미정, 서 진, 서옥희, 석귀희, 신길순, 신순남, 신흥식, 안병국, 양혜선, 윤윤순, 이경순, 이덕형, 이석형, 이영희, 이은자, 이의선, 이지순, 이진호, 임종명, 장경순, 장영숙, 전옥규, 정재순, 천운철, 최경생, 최윤남, 한복희, 한승희.

단체 : 동송교회, 신림교회, 충정교회, 신림교회청년회.

선교여행헌금: 박동화, 박지석, 박성주.
세미나간식(헌물) : 서 진.
사무실마련헌금 : 이동화.
특별헌금 : 장경순.

회원 동정

- 9월 1일자로 정기간행부 간사로 수교 하던 안병국 간사가 교육부간사로 이임하였습니다.
- 9월 1일자로 정기간행부 간사를 석귀희 간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 9월 1일자로 김용배 전도사가 기도후원회 담당간사로 취임하였습니다.
- 선교여행을 8월 18일 떠나던 이동회 총무간사가 9월 6일 무사히 선교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 대만 호산나 선교회의 符志敏 자매가 9월 26일에 한국을 방문하여 본 선교회의 교육부 교재개발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강정애, 윤명자 회원이 문화사절단의 일원으로 북경아시안게임에 참석하였습니다.
- 김성순, 노재은, 이민선 회원이 대만 기독교정병훈련에 참석했다가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재 정 보 고 (9 월)

♡ 후원자상황 (9월) ♡

수 입	지 출
전월이월 -265,7000	임 대 료 300,000
후 원 금 1,945,000	사 례 비(4명) 800,000
메뉴얼번역료 1,101,000	세미나강사료 40,000
현지사역자를 위한 현금 92,160	선교지원현금 20,000
	노인회지원금 10,000
	도서구입 53,100
	복 사 54,390
	우편발송료 29,600
	사무비(비품) 21,790
	전 화 료(fax포함) 55,670
	선교여행예치금 150,000
	컴퓨터모니터 75,000
	워드프로세서 140,000
	컴퓨터디스크 16,000
	비디오공테이프 35,000
	식 비 20,870
	신문대금(2개월분) 8,000
	자물쇠 및 형광등 41,500
	잡 비 18,800
	다 과 비 5,600
	출 판 기 금 1,101,000
	현지선교현금 92,160
수 입 계 ₩ 2,872,460	지 출 계 ₩ 3,088,480
	잔 액 ₩ -216,020

강정애, 김구성, 김근수, 김성순, 김순임, 김승심, 김승원, 김신봉, 김원영, 김은숙, 김정하, 노숙자, 노재은, 류수현, 문정희, 민 진, 박동화, 박성주, 박정숙, 박종표, 박주서, 박지석, 박지화, 박혜영, 빈미정, 서기원, 서민혁, 서 진, 석귀희, 신길순, 신순남, 안병국, 양혜선, 왕사악, 윤윤순, 이기연, 이덕형, 이동화, 이성철, 이영희, 이은자, 이의선, 이지순, 임종명, 정재순, 장경순, 장영숙, 전옥규, 최복순, 한복희, 한승희, 남궁양석, 후암동, 조재웅.

단체: HOPE, 동승교회, 신림교회,

충정교회, 평산교회.

헌물: ◎정진철(현대건설해외선교부): 성경책(중·영판), 테이프, 전도지

◎김종덕: 카세트공테이프(2천개)

◎금문호: 컴퓨터(AT 1세트)

◎박지석: 음향기기

수재현금: 빈미정, 박성주, 박혜영, 방송대중국어성경반.

수재헌물(옷가지): 박지석, 석귀희, 정재순, 이금복.

특별헌금: 석귀희.

☐ 알 림 ☐

- 9월 21일 금요철야기도회가 삼각산 기도원에서 22명이 참석하여 은혜스럽게 진행 되었습니다.
- 선교중국어연수 증급과정이 9월 7일부터 시작하여 22명이 열심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 10월 29일 월요일 본 선교회 창립 1주년 기념예배가 고당기념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회지에 실을 회원 여러분의 원고를 모 집합니다. 신앙글, 시, 기도문 등을 정 기간행부로 보내주세요.
- 중국선교를 위해서 신앙서적 및 설교 테이프를 모집 중입니다. 여러분의 기 도와 동참을 바랍니다.
- 9월 24일 간사협의회 결정에 따라 매월 정기세미나시 현금시간을 마련하여 그 전액을 현지 사역자의 생활보조로 지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 9월 24일 간사협의회 결정에 따라 전 임간사의 사례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 로 인상하고 전임간사도 3명에서 4명으 로 증원되었습니다.

☐ 기도제목 ☐

- 창립1주년 감사예배 및 총회가 10월 29일에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선교활동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차기 선교사업계획수립에 본 선교회가 꼭 감당해야 할 일이 계획 될 수 있도록, 후원회원 배가운동이 일어나도록 홍보 및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본 선교회에서는 전도요원을 훈련시켜 해마다 고국을 방문하는 중국교포들에게 전도 및 제자화 훈련을 시키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이 11월 말로 임대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부득불 다른 사무실을 물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년간 좋은 장소에 월 30만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① 임대보증금마련: 약 500만원(현재 100만원 마련됨)
- ② 교통이 편리하면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한 곳

- 각 부서별 기도제목

<총무부>

- 본 선교회는 창립 당시부터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측면에서 지원하고 돕는 역할에 비중을 두어 왔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선교에 관심을 갖고있는 교회들과 밀접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몇몇 교회와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는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립 1주년을 기해서 보다 많은 교회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부>

- 함께 활동할수 있는 헌신된 일꾼을 보내 주시도록
- 연구부 일을 체계있게 분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 연구부원들과 연구간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활기를 공급해 주시도록

<번역·출판부>

- 모임시간이 토요일 오후 1,3째주 3시로 변경되었습니다.시간이 잘 지켜지고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 번역부 사역에 대한 단계별 비전이 잘 실현 되도록
- 번역부의 사역, 번역, 운문, 교정이 분담적으로 이루어지고, 인원이 모아지고, 능력있는 회원들이 잘 안배되어 참여 하도록
- 중국어번역팀이 구성되도록
- 번역부 스타디 교재, 은혜가 되고 좋은 훈련을 할 수 있는 교재를 선택하도록

<교육부>

- 선교중국어연수가 9월6일부터 시작되어 中國文化20講, 성경, 찬송 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2명 모두 탈락되지 않고 잘 이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강사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 새로운 선교연수 프로그램개발과 교재개발 및 많은 형제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후원회>

- 기도후원회 모임이 매주 토요일 선교회 사무실에서 12시~1시에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10월 19일(금) 삼각산 기도원에서 철야기도회가 있습니다. 9시에 선교회 사무실에서 모여 함께 출발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동참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부>

- (1) 격월로 “중국을 주계로”회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마땅이 실어야 할 선교차 차원의 내용을 실을수 있도록
- (2) 함께 일할 수 있는 재능있는 동역자를 보내 주시옵소서(특히 편집의 재능)

▣연구부 활동보고▣

연구부에서는 “중국선교핸드북”정리작업을 모두 끝내고 모든 원고를 두란노서원으로 송고하였다. 특히 중국선교핸드북 한국어판 서문을 조나단 차오박사님으로부터 송고 받았으며, 김명혁박사님, 손봉호교수님, 이종운 목사님, 전호진박사님 등 네 분의 추천사를 끝으로 원고작업의 최종마무리를 하였다. 다음에는 “중국기독교100년사” 원고정리작업을 하게 될 예정이며, 연구부에서는 “중국사회주의 시기의 종교문제”라는 중국의 종교정책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가 모아진 책을 윤독하려고 한다. 연구부는 첫째, 셋째주 토요일 3시에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번역 - 출판부 활동보고▣

이민선, 노재은 회원이 번역·출판부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회원의 모임 참석여부가 지속적으로 문제거리이자 기도제목이었는데, 마침내, 출석하기 어려운 회원들은 우편 연락을 통하여 번역 교정일에 참여하게끔 구성하였다. 안순덕, 강갑숙, 한복희, 정인숙 회원이 우편을 통해 일을 분담하게 되었다. 가능한 모양대로 참여하고자 애쓰시는 회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모임시간은 2,4주 토요일 오후 3시로 변경되었음을 알린다. 번역부원이 아니어도 지금 하고 있는 <荒漠甘泉> 묵상집 번역공부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성시

무한히

인내로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추기시어 어떠한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인내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인내롭게 하시어 모든 시련과 고뇌를 극복하는 굳센 마음을 길러 주십시오.

우리를 인내롭게 하시어 초조한 마음을 누르고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생각을 가라앉히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인내로운 자 되게 하시어 예의에 벗어나는 말이나 가혹한 대답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인내로운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신 섭리에 마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님의 자비에 몸을 맡기여 차분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인내로운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의 자비를 힘입어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화스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인내로운 자 되게 하시어 이웃의 결점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참고 견디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인내로운 자 되게 하시어 이웃과 사귀는 것이 어려울 때에도 평화와 미소를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주님의 인내와 하나되어 세계의 구원을 위해 인내롭게 스스로를 바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 J.갈로의 '사랑의 기도'중에서 -